

『사세키슈』(沙石集)의 자음어(字音語)에 대한 사적 고찰

전 형 식*

차 례

- I. 머리말
- II. 연구 방법 및 자음어(字音語)의 전체상
- III. 자음어의 지수별(字數別) 사용도수와 그 성격
- IV. 자음어의 출처 고찰
- V. 맺는말

I. 머리말

언어의 역사를 생각하는 경우, 대상이 되는 언어는 기본적으로 구두어(口頭語)로 이것을 관찰해서 언어의 역사를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구두어는 항상 발화 순간에 사라져 버려 현실에 흔적을 남기지 않았던 구두어가 인류의 문자 고안에 따라, 인간 생활의 장(場)에 머물 수 있게 되면서 문장어(文章語)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일본어의 역사상 근대어의 시발점이라고 일컬어지는 무로마치(室町) 시대는 구두어가 문자로 기록되면서 당시의 일본어를 알기 위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귀중한 구두어 자료가 등장하는 시대이다.

일본어사(日本語史)의 시대구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說)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일본어의 변천 과정을 크게 이분하면 고대어(古代語)와 근대어(近代語)로 나눌 수 있다. 일본어사는 물론 정치사나 문학사의 시대구분과 같이 명확하게 시대를 잘라 구분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한 시대에 음운(音韻)·어법(語法)의 변화가 일어났을 경우, 원래의 음

*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조교수

운·어법이 일시에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신구현상이 공존하는 과도기적 시기를 거치기 때문이다. 무로마치(室町) 시대의 일본어가 근대 일본어의 기초를 이룬다고 보는 것은, 난보쿠초(南北朝)의 장기에 걸친 전국 규모의 전란을 통해, 종래의 교토(京都) 중심의 일본어가 사람들의 교류에 의해 일본 각지의 언어와 융합해서, 고대어의 양상에서 탈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용 속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 한자어이다. 한자어는 수용 초기 단계에서는 제한된 지식인 계층에 의한 서기언어(書記言語)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중세는 전(前) 시대의 귀족 중심의 언어를 대신해 민중적인 언어가 대두되고 한자어를 사용하는 계층이 보다 확대되었으며, 초기의 외래어 차원에서의 한자어 수용이 일본어에 동화되어 일본어화 된다고 할 수 있다.¹⁾

줄고(1999, 2000, 2001)에서 서기언어(문장어)로 수용된 한자어 초기 수용 형태가, 무로마치(室町) 시대에 일본인 각 계층의 사람들에게 널리 향수(享受)된 교겐슈(狂言集)에 있어서 어떻게 수용되었는가 그 성격과 특징을 밝혔고, 그 특징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공시적(共時的) 관점에서 동시대의 구두어 자료인 아마쿠사 헤케모노가타리(天草平家物語)와의 비교, 고찰을 하였다. 또한 통시적(通時的)인 관점에서의 비교, 고찰을 위해 가마쿠라(鎌倉) 시대 대표적인 군키모노가타리(軍記物語)인 헤케모노가타리(平家物語)와의 비교, 고찰도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무로마치(室町) 시대는 헤이안(平安)·가마쿠라(鎌倉) 시대의 한자어가 그대로 계승되어 널리 사용되었고, 앞의 양 시대만큼 새로운 자음어(字音語)가 등장하기 어려운 시대였으며, 또한 자음어를 출처와 의미의 양면에서 고찰한 결과 종래 일본어에 존재하지 않았던 자음어가 먼저 수용되었다는 것을 밝혔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특징들이 다른 장르의 자료에서도 나타나는지 통시적인 관점에서의 비교, 고찰을 위해 가마쿠라(鎌倉) 시대의 설화문학인 사세키슈(沙石集)²⁾를 텍스트로, 무로마치(室町) 시대의 구두어(口頭語)·일상어(日常語)에 이용된 한자어와는 어떠한 상이점이 나타나는지 그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각각의 자료의 성격에 따라 거기에 사용된 어휘에는 어느 정도의 편차가 나타난다고 생각되는데, 실제로는 어떠한 차이가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고찰하고, 본 논문에서 통계 처리된 연구결과가 금후 다른 자료와의 비교, 고찰의 기본 자료가 되도록 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및 자음어(字音語)의 전체상

설화 모노가타리(說話物語)에 관한 어학적 연구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으며, 본 논문의 테마 중, 일부분으로써 참조할 수 있는 논문은 참고문헌에 제시한 것들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수많은 논문 중에서도 한자어의 수용과 계량적 연구에 초점을 맞춘 논문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다.

연구 방법으로는 사세키슈(沙石集)에 사용된 한자어 중, 혼종어(混種語)³⁾를 제외한 자음어(字音語)⁴⁾만을 추출하여, 먼저 계량적으로 파악하고, 그 중에서 중심이 되는 어휘군을 출현 시기별로 나눈 다음에 의미 분류를 하여 어떠한 의미 분야의 자음어가 일본어 속에 먼저 수용되었는지를 고찰한다. 또한 그 특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무로마치(室町) 시대의 교겐슈(狂言集)에 사용된 자음어와 비교하면서 논한다.

우선 사세키슈의 자음어에 대한 전체상을 파악하기 위해 혼종어를 제외한 자음어만을 대상으로 교겐슈와 비교하면서 양적인 분석을 행한다.

사세키슈의 자음어 전체는 별개어수 4,691어, 연어수 19,756어로 그 분포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1> 사세키슈(沙石集)의 자음어의 분포

사용도수	별개어수	연어수	누계어수
163~100	7(0.1)	1,089(5.5)	1,089(5.5)
99~50	31(0.7)	2,160(10.9)	3,249(16.4)
49~20	133(2.8)	4,054(20.5)	7,303(37.0)
19	13(0.3)	247(1.3)	7,550(38.2)
18	16(0.3)	288(1.5)	7,838(39.7)
17	19(0.4)	323(1.6)	8,161(41.3)
16	19(0.4)	304(1.5)	8,465(42.8)
15	18(0.4)	270(1.4)	8,735(44.2)
14	24(0.5)	322(1.6)	9,057(45.8)
13	22(0.5)	286(1.4)	9,343(47.3)
12	29(0.6)	348(1.8)	9,691(49.1)
11	39(0.8)	429(2.2)	10,120(51.2)

10	44(0.9)	440(2.5)	10,560(53.5)
9	58(1.2)	528(3.0)	11,148(56.4)
8	61(1.3)	488(2.5)	11,576(58.6)
7	93(2.0)	651(3.3)	12,227(61.9)
6	111(2.4)	666(3.4)	12,893(65.3)
5	139(3.0)	695(3.5)	13,588(68.8)
4	272(5.8)	1,088(5.5)	14,676(74.3)
3	403(8.6)	1,209(6.1)	15,885(80.4)
2	730(15.6)	1,460(7.4)	17,345(87.8)
1	2,411(51.4)	2,411(12.2)	19,756(100)
합 計	4,691(100.1)	17,724(99.7)	19,756

상기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사세키슈의 자음어의 사용도수 10회 이상의 누계 사용률이 전체 누계 사용률 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므로 사용도수 10회 이상이 고빈도의 어(語)라 할 수 있겠다. 누계 사용률은 사용도 순위 상위로부터 어느 한 순위까지의 별개어수 사용도의 합계가 연어수 전체의 어느 정도의 비율에 해당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누계 사용률은 최상위의 어(語)에서 그 순위까지의 어의 사용률의 합계가 되므로 사세키슈의 자음어 중, 사용도수 10회(53.5%)까지를 기준으로 고찰한다.

<표1>로부터 사용도수 10회까지 별개어수의 사용률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용도	별개어수(%)
100회 이상	0.1%
50회까지 더해서	0.8%
20회까지 더해서	3.6%
10회까지 더해서	8.7%

사용도수 10회까지의 개별어수의 누계가, 총 개별어수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이 9%를 넘지 않는다. 즉 사용도가 높은 한자어는 총 개별어수의 약 9%의 자음어 수에 의해 조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자어수를 사용도수 마다 누계해서 그 비율을 나타

내면 사용도수 10회 이상의 개별 자음어수는 414어(전체 개별어수의 8.7%)이고, 그 언어수의 누계 비율은 전체 언어수의 53.5%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사용도수 1회의 별개어수가 전체 언어수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2%, 사용도수 2회를 더하면 19.6%, 사용도수 5회까지를 더해도 34.7%로 전체의 35%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도수 1회(2,411어)의 개별어수가 전체 개별어수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은 51.4%, 5회까지 더하면 84.4%로 전체 개별어수의 대다수가 저사용도(底使用度)의 한자어인 것을 알 수 있다.

다나카 아키오(田中章夫, 1978)에 의하면 고빈도 어군은, 한편으론 기본적인 어를 포함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그 조사 대상 특유의 어를 포함한다는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생각하면, 샤세키슈에서는 사용도수가 높은 한자어는 샤세키슈의 특유의 불교 관계어 「世間163, 方便116, 意108」 등 제한된, 소수의 한자어(사용도수 10회 이상의 한자어)에 의해 표현되고 있는데 반해, 사용도수가 낮은 한자어는 전체 개별어수의 85.4%(사용도수 1회부터 5회까지)를 차지해 샤세키슈의 표현의 다양성은 저사용도어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바꿔 말하자면 샤세키슈의 자음어 표현에 있어서의 다양성은 극단적으로 사용도수가 높은 한자어에 의존해서 표현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그 특징을 보다 객관화하기 위해 동시대의 설화모노가타리인 『우지슈이모노가타리(宇治拾遺物語)』, 『훗신슈(發心集)』⁵⁾(이하, 우지(宇治)·훗신(發心)으로 약칭함)와 비교한다. 샤세키슈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가공한 텍스트의 데이터를 사용도수 별로, 먼저 고사용도를 중심으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사용도	우지(宇治)	훗신(發心)	샤세키(沙石)
100회 이상	0.2%	0%	0.1%
50회까지 더해서	0.3%	0.2%	0.8%
20회까지 더해서	1.1%	1.6%	3.6%
10회까지 더해서	4.5%	3.9%	8.7%

사용도수 10회까지의 별개어수의 누계 비율은 우지(宇治) 4.5%, 훗신(發心) 3.9%로 두 작품에서도 사용도가 높은 자음어는 우지·훗신에서 4~5% 대로, 샤세키슈가 우지·

훗신에 비해 높은 비율을 타나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총 개별어수에 비하면 소수의 자음어에 의해 조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사용도가 낮은 1회부터 5회까지의 사용도가 차지하는 전체 개별어수에 대한 각 사용도수의 연어수의 비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용도	우지(宇治)	훗신(發心)	샤세키(沙石)
1회 이상	16.9%	23.3%	12.2%
2회까지 더해서	28.8%	36.9%	19.6%
3회까지 더해서	36.3%	44.9%	25.7%
4회까지 더해서	41.3%	50.7%	31.3%
5회까지 더해서	45.9%	55.4%	34.8%

교겐슈가 사용도수 1회부터 5회까지 더해서 겨우 22%에 달하지 않는데 대해, 설화모노가타리에서는 약 35%~55% 전후를 차지해, 저사용도의 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표현의 다양성을 저사용도의 어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Ⅲ. 자음어의 자수별(字數別) 사용도수와 그 성격

한자어의 외형상의 특징으로서, 일본어에서는 한자 두 자로 구성된 2자 한자어가 많은 것을 들 수 있다. 가시와다니 요시히로(柏谷嘉弘, 1967)에 의하면 헤이안(平安) 시대의 가나문학(假名文學) 작품의 한자어에서는 1자 한자어가 3할을 차지하고, 2자 한자어가 6할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⁶⁾ 이에 비해 샤세키슈의 한자어는 자수별(字數別)로 어떠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지를 자음어만의 형태를 주로 1자, 2자, 3자, 4자, 5자 이상의 한자어로 분류해서 양적 분석을 하고, 그것을 교겐슈와도 비교하면서 고찰한다. 아울러 그 특징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품과의 비교가 필요하므로, 한자어 초기의 수용이 구체적으로 파악되는 헤이안 시대의 닛키모노가타리(日記物語)의 경우와 비교한다.

가시와다니(柏谷)⁷⁾의 여러 논문에서 제시된 수치와 대비시키면 어느 형태로부터 수용되었는가가 명확하게 되리라 추측되므로, 그 수치와 대비시켜서 제시하면 다음의 <표2>와 같다.

<표2>자음어의 지수별 분포

한자어	어수	겐지 (源氏)	마쿠라노소 시(枕草子)	우쓰보 (宇津保)	가게로 (かげろふ)	사세키 (沙石)	헤케(平家)	교겐(狂言)
1자	별개(%)	524(27.2)	222(21.7)	541(24.0)	107(29.9)	347(7.4)	270(6.2)	225(8.6)
	연어(%)	4,693(38.3)	658(28.4)	4,087(30.8)	446(46.8)	3,625(18.3)	2,261(12.8)	2,402(16.6)
2자	별개(%)	1,004(52.0)	585(57.1)	1,196(53.1)	182(50.8)	3,312(70.6)	3,388(78.1)	1,866(71.5)
	연어(%)	6,356(51.9)	1,318(56.9)	6,873(51.8)	404(42.3)	14,273(72.2)	13,863(78.2)	10,562(73.1)
3자	별개(%)	270(14.0)	150(14.6)	357(15.8)	45(12.7)	495(10.6)	456(10.5)	262(10.0)
	연어(%)	935(7.6)	239(10.3)	1,879(14.2)	78(8.2)	1,042(5.3)	1,092(6.2)	808(5.6)
4자	별개(%)	92(4.8)	46(4.5)	116(5.1)	16(4.5)	463(9.9)	184(4.2)	198(7.6)
	연어(%)	212(1.7)	81(3.5)	354(2.7)	16(1.7)	719(3.6)	464(2.6)	561(3.9)
5자 이상	별개(%)	40(2.1)	21(2.1)	43(1.9)	8(2.2)	74(1.6)	38(0.9)	58(2.2)
	연어(%)	54(0.4)	22(0.9)	68(0.5)	10(1.0)	97(0.5)	44(0.2)	109(0.8)
합계	별개(%)	1,930(100.1)	1,024(100)	2,253(99.9)	358(100.1)	4,691(100.1)	4,336(99.9)	2,609(99.9)
	연어(%)	12,250(99.9)	2,318(100)	13,261(100.1)	954(100)	19,791(100)	17,724(100)	14,442(100)

한자어를 지수별로 검토하면, 헤이안 시대의 가나문학 작품과 중세의 작품들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보이는데 반해, 중세 작품들 사이에는 장르가 달라도 사용상 큰 차이 없이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수별 분포를 보면 시배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2자 한자어(자음어)가 한자어 수용의 전형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구체적인 비율을 살펴보면, 한자어 수용초기의 헤이안 시대의 문헌과 중세의 문헌들에 공통적으로 2자 한자어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헤이안 시대 문헌의 사용률이 어느 경우나 50%~60%의 사이에 분포하고 있는데 반해, 중세의 문헌들에는 어느 경우도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10%~20% 낮은 사용률을 보이고 있는 헤이안 시대 문헌의 1자 한자어가 20%대의 사용률을 차지해 중세의 문헌에 비해 20%정도 사용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자어 수용초기에는 2자 한자어가 주력이 되어 수용되었지만, 1자 한자어도 유력한 수용의 형태였다. 그러나 가마쿠라(鎌倉) 시대의 군키모노가타리(軍記物語)

인 헤케나 설화모노가타리인 사세키슈, 그리고 무로마치(室町) 시대의 교겐슈에서는 주력이 2자 한자어 수용에 집중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세 가나(仮名) 작품⁸⁾에 2자 한자어가 우세한 것은 이러한 한자어 수용형태가 가마쿠라 시대로부터 무로마치 시대까지 계승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동시대의 설화모노가타리인 우지와 훗신에서는 어떠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지(宇治)	훗신(發心)	사세키(沙石)
1자 한자어(개별어수%)	132(12.3)	129(9.3)	347(7.4)
2자 한자어	677(63.1)	928(66.7)	3,312(70.6)
3자 한자어	156(14.5)	166(11.9)	495(10.6)
4자 한자어	88(8.2)	147(10.6)	463(9.9)
5자 이상	20(1.9)	21(1.5)	74(1.6)

위와 같이 우지와 훗신의 경우에도 2자 한자어가 최대를 차지하는 것은 변함이 없으나 각각의 비율을 살펴보면 우지·훗신과 사세키슈에서는 2자 한자어의 사용률에서 차이가 보인다. 우지·훗신이 한자어 수용 초기의 헤이안 시대의 문헌의 사용률(어느 경우도 50~60%의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에 가까운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사세키슈에는 중세의 군기모노가타리나 교겐슈가 70%이상인 것과 같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우지·훗신의 문체가 기본적으로 헤이안 시대의 문체를 답습하고 있다⁹⁾고 일컬어지듯이, 우지·훗신에서는 2자 한자어가 주력이 되어 수용됐던 한자어 수용 초기의 경우와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가마쿠라 시대 후기의 사세키슈에서는 가마쿠라 시대의 군기(軍記)나 무로마치 시대의 군기·교겐슈와 같이 새로운 2자 한자어를 집중적으로 수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같은 중세의 작품이라고 해도 작품의 성격에 따라 지수별로 보는 한자어 수용의 실태는 일률적이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IV. 자음어의 출처 고찰

고빈도의 어는 그 작품의 독특한 표현을 이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용도수 10회 이상의 한자어(자음어)의 성격을 출현 시기별¹⁰⁾과 의미별¹¹⁾로 나눠 고찰하고자 한다.

사세키슈의 사용도수 10회 이상의 자음어는 414어로 그 용례의 근거는¹²⁾ 미야지마 다쓰오(宮島達夫, 1975)『고전대조어휘표(古典對照語彙表)』, 『일본국어대사전(日本國語大辭典)』, 『시대별국어대사전(時代別國語大辭典)』, 『신초국어사전(新潮國語辭典)－현대어·고어(現代語·古語)』와 이미 간행된 색인류에 따랐다. 먼저 414어를 출현 시기별로 나눠, 1. 헤이안(平安) 시대까지 보이는 語, 2. 가미쿠라(鎌倉) 시대에 보이는 어와 의미별에 따라 ①자연(自然)(自然·性狀·變動) ②인사(人事)(行動·心情·人物·性向) ③문화(文化)(社會·學芸·物品)의 세 종류로 분류해서 제시한다.

1. 헤이안(平安) 시대까지 보이는 어

1) 1자 한자어 (60語)

①자연(自然) (19語)

(自然) 地勢—地, 生理—故·用·死, 動物—蛇, 物質—毒
 (性狀) 位置—辺·他, 狀態—樣, 數量—一·三·四·余,
 程度—中, 類型—如·例, 價值—意
 (變動) 關連—因·果

②인사(人事) (17語)

(心情) 愛憎—恩, 誘導—戒, 意向—性·欲
 (人物) 地位—主·王, 神仏—天·釈·魔·靈, 人稱—師
 (性向) 才能—功·智, 心境—業, 姿態—像, 境遇—福, 性格—德

③문화(文化) (24語)

- (社会) **人倫**—緣·惡·義·信·善, **風俗**—儀·禪·俗, **地域**—京,
職業—僧, **統治**—法, **社交**—禮, **取引**—得
- (学芸) **文書**—書·經·句·本, **學術**—学, **記号**—機,
言語—語·言
- (物品) **建物**—坊·房·堂,

2) 2자 한자어 (211어)

①자연(自然) (47어)

- (自然) **曆日**—一日·三年, **景觀**—景色, **動物**—舍利·畜生,
植物—蓮華, **生理**—在世·四生·生死·身命·殺生·入滅·輪廻
- (性狀) **價值**—大事·真實·肝心·肝要·清淨, **數量**—一切·少々·
 大小, **時間**—今生·一代·一旦·當時·臨終, **位置**—御前·
 左右·最後·余所, **狀態**—子細·幻化·実相·常住·不動·
 無常, **實質**—有相·仏性, **程度**—隨分
- (變動) **情勢**—榮華·流轉, **經過**—次第, **關連**—功能·根本,
出沒—示現, **增減**—不足, **變形**—持戒

②인사(人事) (100어)

- (行動) **動作**—坐禪, **陳述**—說法·云々, **勞役**—業因·功德·妄業
- (心情) **意向**—本意·用意·執着·意樂·一念·一心·五欲·念々·
 本願·煩惱·無明, **思考**—菩提·邪見·解脫·身心·涅槃·妄
 心, **誘導**—五戒·聖教, **學習**—修行·三学·定慧, **愛憎**—
 慈悲·差別, **悲喜**—往生·感覺·感應·正念, **榮辱**—輕慢·愚痴
- (人物) **神仏**—觀音·如來·菩薩·釈迦·釈尊·応身·三身·諸天·

諸仏·大日·般若·仏身·法身·弥陀·弥勒·羅漢, **地位**—
 下人·弟子·国王·師資·先達·法相, **老若**—女人, **役割**
 —使者·祖師, **人物**—惡人·賢人·強盜·知者·凡夫·名人,
人稱—古人·人間, **親族**—妻子·子息·女房, **仲間**—衆
 生·同法, **職業**—法師·沙門·學生·行者·行人·獄卒·長老·
 道人·道俗·比丘·老僧

(性向) **境遇**—僧正·大師·僧都·因緣·果報·苦患·禪師·名聞,
性格—偏執, **才能**—賢王·智慧·知識, **性格**—無心,
態度—有緣·平等·法界

③문화(文化) (64어)

(社会) **集團**—後世·天下·淨土·先世·本国·惡趣·惡道·穢土·
 顯密·極樂·地獄·冥途·六趣, **人倫**—罪障·仁義·道心·破戒,
處世—出家·入道·結緣·遁世, **施設**—御所·道場, **報道**—沙
 汰, **取引**—得失·內証·利益, **統治**—諸法, **地域**—天竺·地頭,
習俗—念仏·天台·佛法·孝養·供養·作法·佛法·真言·信心
 ·大乘·仏事·仏道·法門·法華·密教
(学芸) **論理**—道理·阿字·三論·真如·方便·六塵, **文書**—返事,
學術—學問, **文學**—連歌·和歌, **美術**—本尊, **記号**—文字
(物品) **物資**—布施·三宝·信施, **衣類**—袈裟, **建物**—三藏·僧坊·多聞

3) 3자 이상의 한자어 (10어)

①자연(自然) (0어)

②인사(人事) (7어)

(心情) **思考**—菩提心

(人物) **神仏**—大明神·陀羅尼·仏菩薩, **職業**—阿闍梨·善知識

(性向) 心境—不思議

③문화(文化) (3어)

(社会) 施設—大神宮, 習俗—法華經·心地觀經

헤이안 시대까지 보이는 어는 위와 같다. 사세키슈의 1차 한자어를 의미면으로부터 살펴보면, 「문화」(文化)범주의 어가 가장 많고, 이어서 「자연」(自然)「인사」(人事)관련어 순이 된다. 한편, 교겐슈의 1차 한자어에 있어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1차 한자어를 출처와 의미면에서 생각하면, 헤이안 시대의 1차 한자어는 「문화」관련어를 중심으로 수용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차 한자어는, 사세키슈에서는 「인사」관련어가 가장 우세하고, 그 중에서도 불교어 관련어인 심정(心情) 관계어라든지 인물(人物) 관계어가 최대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교겐슈에서는 「문화」관련어가 가장 많고 그 중에서도 사회(社會) 관계어인 집단명칭(集團名稱)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점에서 차이가 보인다.

3차 이상의 한자어는 사세키슈가 「인사」관련어가 우세하고, 그 중에서도 신불(神仏)이나 직업관계(職業關係) 불교어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한편, 교겐슈에서도 동등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그 중에서도 신불 관계어가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이다.

2. 가마쿠라(鎌倉) 시대에 보이는 어

1) 1차 한자어 (31어)

①자연(自然) (10어)

(自然) 物質—金, 生理—生(性状) 程度—分, 類型—宗·等, 數量—有, 形狀—空, 價值—実·非(變動) 移動—障

②인사(人事) (10어)

(行動) 往來—行, 勞役—失, 寢食—食

- (心情) **愛憎**—情, **悲喜**—苦
 (人物) **人物**—賊
 (性向) **姿勢**—体, **性向**—念·格·相

③문화(文化) (11어)

- (社会) **取引**—益·財, **地域**—境, **統治**—定·則·律, **人倫**—仁,
報道—說
 (学芸) **文章**—文·状
 (物品) **見物**—門

2) 2자 한자어 (96어)

①자연(自然) (26어)

- (自然) **動物**—畜類, **植物**—種子, **生理**—生所·成仏·多生,
景觀—大道, **物象**—妙用
 (性状) **狀態**—風情, **類型**—種々, **價值**—是非, **實質**—自性·無相
時間—一期·今度·末代·一生·近代·上代·中古·当世·
 当来·平生·本来·無始
 (變動) **關連**—因果, **變質**—利養

②인사(人事) (41어)

- (行動) **勞役**—執行·宿善·善根
 (心情) **愛憎**—利生, **榮辱**—名利, **思考**—心中·不審·知見·仏意·
 妄念, **意向**—執心·觀心·神慮, **學習**—行業
 (人物) **神仏**—神明·地藏·文殊, **職業**—上人·學者·神官·禪門,
職業—尼公·在家·坊主, **人稱**—面々·万人, **老若**—男女,
地位—武士·師匠·古德·先德·代官·難陀, **親族**—一門·

父母, **人物**—聖者, **仲間**—大衆

(性向) **心境**—無念, **境遇**—人身·垂迹, **姿態**—和光

③문화(文化) (29어)

(社会) **處世**—出世·出離, **地域**—所領·漢土·本地, **報道**—口

伝, **集團**—世間, **習俗**—小乘·諸宗·總持, **人倫**—善惡·

義理·道念·魔道, **集團**—後生, **社交**—行儀·來迎,

統治—万法, **地域**—南都

(学芸) **言語**—言說, **論理**—諸法·大意·大綱·万事·唯識,

記号—名号

(物品) **建物**—教門·宝藏, **食品**—食物

3) 3자 이상의 한자어 (6어)

①자연(自然) (0어)

②인사(人事) (3어)

(心情) **思考**—出離解說

(人物) **職業**—在家人, **地位**—仏弟子

③文化 (三語)

(社会) **集團**—淨土門, **習俗**—十輪經·涅槃經

가마쿠라 시대에 보이는 어는 위와 같다. 사세키슈의 1자 한자어는 전 시대에 비해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없고, 「자연」(自然)「인사」(人事)「문화」(文化)관련어가 균등하게 나타나 있다. 한편 교겐슈가 「문화」관련어 중, 학예(學芸)·물품(物品) 관계어가 두드러지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2자 한자어는 사세키슈·교겐슈가 모두 「인사」관련어 중에서, 인물(人物) 관계어가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이다.

3자 이상의 한자어는 사세키슈에서는 「자연」관련어는 한 단어도 나타나 있지 않으나

「인사」, 「문화」 관련어는 세 단어씩 나타나 있다. 한편 교겐슈에서는 「문화」 관련어가 없고, 「자연」 관련어가 한 단어, 「인사」 관련어가 세 단어가 나타나 있다.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3> 자음어의 출현 시기별 및 의미별 분포

한자어 시대	1자 한자어				2자 한자어				3자 이상				합계
	自然	人事	文化	合計	自然	人事	文化	合計	自然	人事	文化	合計	
헤이안 (平安)	19	17	24	60 (14.5)	47	100	64	211 (51.0)	0	7	3	10 (2.4)	281 (67.9)
가마쿠라 (鎌倉)	10	10	11	31 (7.5)	26	41	29	96 (23.2)	0	3	3	6 (1.4)	133 (32.1)

위의 표와 교겐슈의 사용도 10회 이상의 자음어의 출처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사세키슈	교겐슈
헤이안(平安)	67.9%	51.8%
가마쿠라(鎌倉)	32.1%	38.6%
무로마치(室町)	9.6%	

사세키슈와 교겐슈의 자음어의 출처의 차를 보면, 헤이안 시대에 보이는 어와 가마쿠라·무로마치 시대에 보이는 어와는 큰 차이가 보인다. 이것은 사세키슈가 와칸콘코분(和漢混淆文)으로 헤이안 시대의 와분타이(和文体)를 기반으로 기록된 문헌이기 때문에 헤이안 시대의 어를 그대로 이어 받아,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이것에 대해 가마쿠라 시대에 보이는 어는 근소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한편, 교겐슈에서는 사세키슈에 비해 헤이안 시대부터의 어는 약간 감소했지만, 가마쿠라 시대부터의 어는 약간 증가해, 전체의 약 90% 이상을 앞의 양 시대 어가 차지하고 있고, 무로마치 시대의 어는 약 10%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선행논문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은 결론으로 한자어(자음어)에 있어서는 사세키슈·교겐슈 두 작품 다 앞 시대의 어가 그대로 계승되어, 이러한 어들은 두 작품의 시대에는 기본어로서 많이 사용되었다고 생각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일본어의 역사상 같은 중세라고 해도 가마쿠라 시대는 전체적으로 전 시대의 한자어 수용 형태를 이어 받고 있으며, 구두어를 반영한 자료가 아직 적은 것도 한자어가 초기의 서기언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 진다. 한편, 무로마치 시대는 전 시대의 가마쿠라 시대에 비해 새로운 한자어 수용이라는 단계를 벗어나 정착되어 일상어로서 널리 사용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사실은 신출의 혼종어 명사는 작품이 성립된 각각의 시대에 많이 등장했으며 역사적인 면으로부터 생각하면 헤이안·가마쿠라·무로마치 시대로 점차 증가해 가는 것을 보면 보다 더 명확해 진다.¹³⁾ 결론적으로 무로마치 시대는 한자어의 수용 단계를 벗어나 고유어와의 융화의 단계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겠다.

V. 맺는말

본 논문에서는 사세키슈(沙石集)의 자음어를 계량적으로 분석해, 일본어의 시대 구분과 한자어 수용의 역사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고찰했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사용도수의 분석으로부터 사세키슈의 표현의 다양성은 사용도가 낮은 어가 담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환언하면 사세키슈의 자음어 표현에 있어서의 다양성은 극단적으로 사용도수가 높은 한자어에 의존해서 표현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지수별 사용도와 그 성격을 분석하면, 한자어 수용 초기에는 2자 한자어가 주력이 되어 수용되었지만, 1자 한자어도 유력한 수용의 형태였다. 그러나 가마쿠라(鎌倉) 시대의 헤케모노가타리(平家物語)나 무로마치(室町) 시대의 교겐슈(狂言集)에서는 주력이 2자 한자어 수용에 집중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세 가나작품(假名作品)에 2자 한자어가 우세한 것은 이러한 한자어 수용형태가 가마쿠라 시대로부터 무로마치 시대까지 계승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장르의 설화모노가타리 중에서는 홋신(發心)·우지(宇治)가 기본적으로 헤이안 시대의 문체를 답습하고 있어 한자어 수용 초기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나 사세키슈는 2자 한자어 수용에 집중되는 무로마치 시대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셋째, 자음어를 용례의 출현 시기별로 분석하면, 혼종어 명사가 작품이 성립된 각각의 시대에 많이 등장해 역사적인 면으로부터 생각하면, 헤이안·가마쿠라·무로마치 시대로

점차 증가해 갔는데 반해, 자음어에 있어서는 사세키슈·교겐슈 두 작품 다 앞 시대의 어가 그대로 계승되어, 이러한 어는 두 작품의 시대에는 기본어로서 많이 사용되었다. 특히 고대어의 양상에서 탈각해 근대어의 기초를 이루는 무로마치 시대는 한자어 수용의 단계를 벗어나 정착했으며, 또한 고유어와의 융화를 이루는 시기이기 때문에 앞의 두 시대만큼 새로운 자음어가 등장하기 어려운 시대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자어 수용에 있어서 같은 중세라고 해도 일본어의 역사상 고대어의 요소가 많이 인정되는 전기의 가미쿠라 시대와 근대어의 요소가 많이 인정되는 후기의 무로마치 시대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注】

- 1) 佐藤喜代治(1980) 『講座國語史 第3卷 語彙史 第4章 近代の語彙 I』大修館書店.
- 2) 深井一郎編(1980) 『慶長十年古活字本沙石集總索引』(勉誠社), 서민을 불도에 인도하기 위해 기록된 전 10권의 仏敎說話集(1283년 성립). 滑稽譚·笑話도 포함되어 후세의 狂言(狂言)·라쿠고(落語) 등에 영향을 끼침.
- 3) 혼종어란 서로 다른 어종의 결합에 의해 생긴 단어를 가리키는데, 본 텍스트에서는 서양어(洋語)와의 결합 예는 보이지 않으므로, 「漢+和」「和+漢」와 같은 두 종류에 의한 결합 예를 가리킨다.
- 4) 사토 기요지(佐藤喜代治)의 『國語學研究事典』에 의하면 한자어란 중국 기원의 語를 주로 가리키며 和語에 대립되는 뜻으로 쓰인다고 하는데, 본 고에서는 한자어를 세분하여 字音語와 混種語로 구분짓고 자음어에 대해서만 논한다. 和語와의 융합에 의해 나타난 사세키슈(沙石集)의 混種語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논하고자 한다.
- 5) 高尾稔·長嶋正久編(1985) 『發心集本文·自立語索引』(清文堂).
境田四郎他編(1995) 『宇治拾遺物語總索引』(清文堂).
- 6) 柏谷嘉弘(1967) 『研究論叢「天草本伊曾保物語の漢語」』(山口大學教育學部)において、次のように述べられている。「一字語も、平安朝の假名文學作品ではおよそ三割を占めるのに對して、伊曾保物語では一割五分と減少している点も注目される。之に對して増加したのは二字語で、假名文學では五割から六割程度の割合であるものが、伊曾保物語ではほぼ八割に達している。」
- 7) 柏谷嘉弘(1987) 『日本漢語の系譜』, 東宛社.
- 8) 중세 전기의 軍記物語인 『保元物語』 75.7%, 『平治物語』 71.0%와 중세 후기의 軍記物語 『曾我物語』 75.6%, 『太平記』 70.4% 그리고 『御伽草子』 70.0%에서도 알 수 있듯이 2자 한자어의 사용률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9) 『國語學研究事典』의 「宇治拾遺物語」「發心集」항의 해설에 따름.
- 10) 시대구분은 『國語學研究事典』의 「國語史年表」에 따름.
- 11) 國立國語研究所報告 4 『婦人雜誌の用語』 및 同 보고서13(1958) 『總合雜誌の用語』의 분류 방법을 답습해 만들어진 同 연구소의 『分類語意表』가 어휘분류에 많이 이용되었으나, 이 분류는 본 논문의 분류 의도와는 맞지 않아 『類語國語辭典』을 이용했다.
- 12) 용례의 출현시기 결정의 근거로써 이 외에도 訓点資料, 漢籍, 仏典 등의 자료가 있지만, 본 논문은

한자어 하나 하나를 역사적으로 考証하는 방법과는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주로 仮名文學에 이용된 용례에 따랐다.

- 13) 즐고(2000a) 「混種語についての史的考察」 『日本語學研究』 第一輯, 韓國日本語學會
 (2000b) 「天草平家物語の混種語についての史的考察」 『日本文化學報』 第 9 輯, 韓國日本文化學會

【參考文獻】

音誠一氏 「沙石集における漢語の副詞的用法及び擬態語・擬音語について」 『金澤大學文學研究10』, 1980.

櫻井光昭氏 「説話文學の語彙」 『講座日本語の語彙 4 中世の語彙』, 1981.

坂詰力治氏 「和漢混淆文としての『沙石集』について—漢語サ變動詞から見た和漢混淆現象—」 『國語學研究22』, 1982.

田中章夫 『國語語彙論 第四章 語彙量と基本語彙』, 明治書院, 1978.

柏谷嘉弘 『日本漢語の系譜』, 東宛社, 1987.

—— 『續日本漢語の系譜』, 東宛社, 1997.

全亨式 「漢語受容史についての一考察」 『國際文化研究』 第 6 号, 東北大學國際文化學會, 1999.

—— 「混種語についての史的考察」 『日本語學研究』 第一輯, 韓國日本語學會, 2000a.

—— 「天草版平家物語의 字音語에 대한 사적 고찰」 『日本語文學』 第9輯, 韓國日本語文學會, 2000b.

—— 「天草平家物語の混種語についての史的考察」 『日本文化學報』 第 9 輯, 韓國日本文化學會, 2000c.

—— 「平家物語의 字音語에 대한 사적 고찰」 『日本語文學』 第11輯, 韓國日本語文學會, 2001.

<사전류>

佐藤喜代治編 『國語學研究事典』, 明治書院, 1983.

大野晋・浜西正人 『類語國語辭典』, 角川書店, 1997.

宮島達夫 『古典對照語い表』, 笠間書院, 1975.

『日本國語大辭典』, 小學館.

『時代別國語大辭典』, 三省堂.

『新潮國語辭典—現代語・古語』, 新潮社.

沙石集の字音語についての史的考察

全 亨 式

本論文では、沙石集をメインテキストとし、二つの点から沙石集の字音語について述べた。一つは、通時的観点から中世前期の資料と後期の資料ではどのようなずれがみられるか。二つは、本来書記言語として受容された漢語が日常語・口頭語として用いられるようになった過程で、書き言葉資料と口頭語資料に使われた漢語ではどのような特徴が見られるかについてである。研究方法は、まず沙石集の字音語の性格とその特性を捉えるために計量的分析を行う。次に、その特徴をより明らかにするために、用例の出現を時期別・意味別に分けて考察した。考察した内容をまとめれば、次のようになる。

一つは、総使用度の分析から沙石集の表現の多様性は底使用度の語によってまかなわれている。換言すれば、沙石集の字音語の表現における多様性は極端的に高使用度の漢語に依存していないことを意味していよう。二つは、字數別使用度とその性格から、漢字數別に漢語を検討すると、二字漢語が最多を占め、平安時代から鎌倉、室町時代にかけて二字漢語が漢語受容の典型となっている。しかし、それぞれの比率を見ると、宇治・發心と沙石では二字漢語の使用率で差が見られる。これは、宇治・發心の文体が基本的に平安時代の文体を踏襲しているといわれるように、宇治・發心では、二字漢語が主力となって受容していた漢語受容初期の平安時代の文獻の使用率(いずれの文獻も五〇%から六〇%の間に分布している)の場合と同様の傾向を示しているためであり、鎌倉時代後期の沙石では、鎌倉時代の軍記や室町時代の軍記・狂言集と同様、新しい二字漢語を集中的に受容するようになったからである。言い換えれば、同じ中世といっても作品の性格によって漢字數別に見る漢語受容の実態は一律ではないのである。三つは、字音語の出現時期別からは、混種語名詞が作品が成立したそれぞれの時代に多く登場し、歴史的に考えると、平安・鎌倉・室町時代と漸次増加していったのに對し、字音語では沙石集・狂言集ともに前時代の語がそのまま受け継がれて、これらの語は兩作品の時代には基本語として多用されたと見られる。なお、日本語の歴史上、中世を一纏めに考える傾向があるが、前期の鎌倉と後期の室町時代では漢語受容史上、分けて考えるべき時代である。